

[북 스]

팍팍한 세상,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림다

어린이 책꽂이



▲선비들의 공부비법 '동'의 보감'을 지은 허준을 비롯해 역사 속의 위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소개한다.



▲꽃들이=사자작가 최병관씨가 2년 가까이 직접 걸어서 카메라에 담았던 후천선의 모습을 책으로 엮은 것. 여자친구의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훑아떨어질 병사, 멈춰 버린 물레방아, 덩그러니 서 있는 탕고, 백마고지의 탄피들 등 사람 발길이 드문 그곳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한국 아동들이 밥 아동들이=각 지역의 전래 설화 10편을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 방식으로 소개한다. 제주도 신화 '국 아동들이 밥 아동들이'를 비롯해 경상도 부석사에 얽힌 '옹이 된 선묘'와 같은 전설, 민담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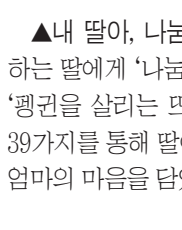
▲우리집 기술쟁이=일본 작가 하이타니 겐지로의 동화집. 표제작 '우리집 기술쟁이'를 비롯해 '공중제비로 날아 저물고' 등 7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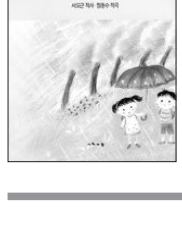
▲하나 동생 두나=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 '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지은 시인의 동화. 동화 속 시인이자씨의 딸 '하나'와 아빠가 새로 사온 강아지 '두나'가 점차 친해지는 과정을 한 편의 서정시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렸다.



▲뫼리지 피는 아저씨=장애인용 소재로만 동화를 많이 써온 고경숙 선생님의 장편동화. 주인공 뫼리와 뫼리 아빠는 우연히 나쁜 일당들에게 이용당하는 뫼리지 피는 아저씨를 알게 되고 힘없고 불쌍한 장애인들을 협력하고 이용하는 나쁜 일당들의 소굴을 찾아 장애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데...



▲내 딸아, 나눔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라네=출로서기를 준비하는 딸에게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한다. '행운을 살리는 뜨개질',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식' 등 나눔 이야기 39가지를 통해 딸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꽃들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다.



▲단비=한국문학,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무안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시인 서오근씨의 동요곡집. '단비' '바다' 등 서씨가 지은 동시 37편에 '파랑새창작동요회' 부회장이며 '광주동요사랑회' 회장인 정동수 선생님이 아름다운 곡을 붙였다.

'엄마의 공책' 외 3권 출간 화제



'언제나 불러도 목이 메는 그 이름 어머니!' 팍팍한 세상에 '어머니' 열풍이 불고 있다. 위로받을 곳 없는 시대에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에 열광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창작과비평사 펴냄)는 새해 들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들의 삶은 잔잔하게 펼쳐 보인다. 저자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가난과 싸우면서 기도와 눈물로 가문과 집안을 지키고 자식을 키워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힘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시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책들이 나왔다. 한국경영사자료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세인 씨가 펴낸 '한국 최고 경영인을 길러낸 어머니의 힘'은 국내 기업 경영자 26명의 어머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자식을 키워냈는지 소개한다. 김윤순·허우수·김정호·김미희·이름만 들어서는 알기 어려운 이들은 국내 우수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어머니들이다.

간 교수는 "모성이 본능이긴 하지만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머니는 자기희생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함축된 전쟁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품에 안은 채 죽어갔으며, 무시

한 굶주림 앞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책은 국가가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 생긴 각종 약간의 가족주의와 계층 상승 및 체제 존속의 수단으로서 나타난 입시전쟁, 부동산 열풍, 정략적인 결혼풍족, 엄청난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동물원'의 작가 이수지 씨의 어머니 서경옥 씨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엄마의 공책'을 냈다. 일흔에 민화 그리기를 시작해 아흔이 된 지금

이외에도 60대 딸이 파킨슨병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7년 동안 돌보며 기록한 글들을 엮은 '어머니를 돌보며'도 잔잔한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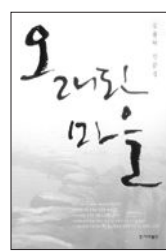
에는 프로 화가에 못지않은 실력을 키운 서경옥 씨의 친정어머니 이야기와 정신을 놓은 아흔네 살의 시어머니 이야기, 바느질과 자수, 가요곡, 판소리까지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려 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풀어놓는다.

평범한 우리네 엄마가 들려주는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긍정적이면서 따뜻해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한다.

(시골생활·1만2천원)

고향 사람들의 정다운 이야기

오래된 마을 김용택 지음



김용택 시인의 새 산문집 '오래된 마을'은 번지 않는 가치를 지닌 오래된 작은 마을, 구체적으로 시인의 고향 전북 임실군 덕치면 '진매마을'의 이야기다. 시인이 지난해 한겨레신문에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시인은 '내 몸'과도 같은 마을의 산과 강,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오래된 사람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따뜻한 문체로 들려준다.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고 저 말 하다가 또 엉뚱한 말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마을사람들, 용돈을 조금 쥐어드리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형수님, 동네 일이라면 모두 소심하게 알고 있는 큰집 형님, 언제봐도 아름다운 고향 마을의 풍광과 가난하지만 정다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소식은 불꽃만은 아니다. 절망스럽고 아픈 농촌의 현실 속에서 자연과 공동체가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재검토했다. "가난하나,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움 바람을 매만지는 손이 있고, 그 아름다운 손으로 땅에 씨를 묻는 화사한 얼굴들이 아직도 세상을 지킨다"(자서(自序) '기적같은 순정' 중)

뿌리를 잃고 부유하는 현대인에게 "그 오래된 작은 마을 사람들의 번지 않는 공동체적인 삶이 인류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잔잔한 울림이 되어 퍼진다.

(한겨레출판·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날씬해진 '꽃돼지' 재영이

다이어트 홀릭 송은일 외 8명 지음



문학은 꼭 진지하고 무거워야 하는가? 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과 호흡할 수 있다면 더욱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빠질법한 고민. 하지만 좀처럼 해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이다. 공통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던 여성 작가들이 '중간소설'이라는 타이틀 아래 작품집 '다이어트 홀릭'을 펴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소설가 송은일씨를 비롯해 권혜수·김정혜·김바·신현수·유덕희 등 '여성동아' 장편소설 당선자 9명이 참여작가다. 공통 주제는 '다이어트'. 글 쓰는 원칙은 진지하지 말고 경쾌해질 것, 시대와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담을 것, 삶에 대한 성찰을 미루지 말 것 등이었다. 형식도 칠팩, SF 등 다양하다.

송은일은 '꼭에서의 첫사랑'에서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인 지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숨어 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유덕희의 '아름을 버려라', 초등학교 시절 꽃돼지였다 지금은 날씬한 여성이 된 재영이 초등학교 동창에게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린 권혜수의 '나의 아름다운 로망' 등이 실렸다.

(텐에이엠·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다섯 가지

재미 한상복 지음



우화형 자기계발서인 '배려'로 밀리언셀러 대열에 올랐던 한상복씨가 3년 만에 신작 '재미'를 내고 지금이 순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짚어주고 있다. 불황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자가 제시한 핵심 코드는 '재미'. 저자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제 진지하고 엄숙한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세상은 논리에서 공감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조화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엄숙주의에서 재미의 추구로 패러다임이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책은 지루한 일상을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아빠와 엄마, 딸이 평범한 일상속에서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즐김으로써 재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을 맛깔나게 그리고 있다.

저자는 또 친절하게 내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까이 받아들이라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재미를 추구하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착각을 버려라 ▲작은 재미들을 소중한 것에 여겨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조언한다.

책을 읽어가다보면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윌즈컴퍼니·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uction notice for Kwangju, Jeonnam region. Includes title '(주)국민법률경매' and '광주, 전남지역 경매'.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Contact info: 0621364-8700 H.P 010-4608-3700.